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7 월의 기도편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수 14: 11- 12)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페루는 긴 여름이 끝나고 추운 겨울이 되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겠네요.

2023 년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소년원 사역

소년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공부를 여러 팀들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처음에 알던 그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처음 몇달은 인사도 받지 않고 거칠게



대답하던 레베카는 이제는 애기 고양이 처럼 애교를 부리기도합니다.

몇주전에는 큐티도 다 쓰고 요한복음을 다 쓴 공책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는 누구의 말도 받아드리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경계심을 보이던 루세로도 요즘은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요한복음을 다 쓴 공책을 제출하였습니다.

말씀공부와 성경필사 그리고 큐티를

하는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다시한번 보게됩니다. 비록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 시작한 성경필사 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다시한번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시간이 많아 무력하고 짜증이 나고 서로 싸움질 하던 아이들이 성경을 쓰느라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시간에 몰래 성경을 쓰다가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소년원에서는 저희들에게 항의를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쁘던지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상급을 믿고 말씀을 사모해야함을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성경필사를 하면 선물을 받는다는 소식에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소년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 공부를 처음하는 아이들이 많고 악보를 보며 박자에 따라 자신이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낯설고 신기해 합니다. 또한 기타, 오르간 그리고 북과 같은 카혼을 쳐보며 자기 자신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잘 배워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을 그려봅니다.

어촌 어린이 사역(Vila Vila)

빌라빌라(Vila Vila)는 Angelica (15), Diego (10), Jair (7) 세남매들이 엄마의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방치 되어서 저희가 섬기던 소년원과 고아원에 있다가 엄마가 알콜 치료를 받고 6개월만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곳입니다. 빌라빌라는 가난한 어부들의 작은마을입니다.



디에고와 자일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글을 읽을줄 몰라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가르치던 아이들입니다. 계속해 좀더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거 같아 아이들을 일주일에 2 번씩을 찾아가 개인교습을 몇달을 하다가 그곳에 교회가 없다는 소식과 아이들의 공부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곳 이름 처럼 (빌라빌라) 기도하면서 이곳에 아이들을 전도해야겠다 라는 소망을 갖게되었는데 성령님께서 동네 이장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을회관을 저희들의 모임 장소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전도를 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방과후 교실을 열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음악선생, 성경공부 교사, 심리학 상담가, 계리사, 대학교 교사, 건축가 그리고 저희 둘, 이렇게 한팀이 되어 일주일에 2 번씩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방과후 교실을 하고, 토요일은 공부와 사역을 겸해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찬양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늘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데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주춤하기도 하고, 실패 앞에 포기하고 싶을때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도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수 없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행 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Vila Vila 의 아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시어 하루속히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날을 바라보며 꿈꿔봅니다.

고아원과 소년원의 아이들 그리고 Vila Vila 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소년원 사역(성경공부, 음악교실, 한국어 교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새로 시작한 어촌(Vila Vila)에 어린이 사역(Mision Shammah)과 방과후 교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3. 장거리사역을 위한 큰 자동차(SUV)구입에 필요한 재정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4.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